

□ 특히,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5.23일 시화공단 방문에 이어, 이번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 단체장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“동산 금융 활성화 추진전략”을 강연

-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, 동산금융 활성화 주요 추진전략을 설명
- 동산금융이 조기에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당부

<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주요내용 >

① 동산의 담보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, 법제도 정비

- ‘평가-관리-회수’ 인프라를 보완하여 안정적 담보운영 기반 조성
- 동산담보법 등을 개정(법무부)하여 담보권자의 권리보장장치를 강화

②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운용체계 전면 개편(은행연 표준내규 개편)

- 원칙적으로 ❶ 모든 기업의 ❷ 모든 동산이 ❸ 모든 대출상품을 통해 담보로 활용 가능

③ 기업과 은행 등에게 적극적 활용유인을 부여

- 기업에게 총 1.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등을 지원하여 금리 등을 우대하고 온렌딩 제공 등을 통한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경감

□ 최종구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과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

-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경영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은 현안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며,
- 최종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금융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

□ 최종구 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

별첨 : 금융위원장 모두발언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